

러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운동

루카센카

...을 가장한 공산주의 운동

왜냐하면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쪽이 주로 공산당이기 때문.

그리고 애초에 부정선거만 없으면 공산당이 정권 잡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음.

어찌됐던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

러시아의 민주화 세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뉨

1. 친서방주의자들

보리스 넴초프, 알렉세이 나발니같은, 주로 서방에 망명해서 종종 방사능 홍차를 마시는 부류가 주로 이쪽 부류임. 이쪽은 유럽연합, 나토 가입과 동시에 서방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쪽임. 다만, 러시아는 시장경제 도입했다가 망한 케이스라 이쪽은 그렇게 많지 않음. 이 새끼들은 푸틴보다 못한 새끼들이라 홍차 마시고 뒤져야 마땅.

2. 공산주의자들

뭐 일단은 러시아 틀딱들. 박사모마냥 정기적으로 집회 여는 양반들임. 공산당 집회는 가보면 노인네들밖에 없음. 주로 소련군 퇴역 장성 내지 열성 공산당원 출신들이 속함. 또 1990년대 엘친의 삼질을 보고 소련 시절에는 반공주의자였다가 갑자기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례도 꽤나 많음. 근데 요즘 연금법 개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음. 그리고 또 러시아 국내에서 제재나 암살 위협 없이 마음껏 푸틴을 깔만한 깡이 있는 곳이 이쪽밖에 없기도 하고, 그루지닌 인기가 꽤 높아서 젊은 층도 요즘 많이 유입된지라 1번 계열보다는 2번 계열이 대부분임. 다만 그루지닌 영향으로 민사주의 내지 사민주의 성향으로 꽤나 우경화된 당원들도 많이 보임.

그리고 다른 하나가...

<https://youtu.be/xUCjugNH1BI>

<https://youtu.be/Vq60vYjrSKQ>

3. 젊은층과 전투적인 소수민족들

1) 젊은층의 유입

여기서 2011년 시위(그 유명한 140%) 때 17세 소녀가 시위 진압대 앞에서 끌려가는 게 보도되고, 2018년 하스키 사건, 2019년 FACE 게이트와 검열법 논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이 대거 유입.

- 하스키 사건

2018년 올란우데 출신의 래퍼 하스키가 지속적으로 정부 비판적인 가사를 쓰다가 주 정부에 의해 모든 공연과 콘서트를 금지당했음. 결국 궁여지책으로 하스키는 공원에 자기 차를 대고 차 천장에 올라가 공연을 했으나 고성방가로 연행당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음. 참고로 하스키는 나랑 아는 사이임.

- FACE 게이트

2019년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러시아의 릴 펌'으로 불릴 정도로 ㅂㅅ 또라이로 유명했던 래퍼 FACE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어차피 결과 안 봐도 비디오니 이번 대선 투표하지 말자!'라고 올렸음. 이로 인해 FACE는 공연이 취소되고 방송 활동이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타격을 받음. 비슷한 시기 '러시아의 에미넴'이라고 불리던 사실상 지금의 러시아 힙합을 만든 Oxxxymiron은 러시아내 공연이 전부 취소되고 옆나라 카자흐스탄에서만 투어를 진행. 반면 푸틴의 꼬봉이나 다름없는 래퍼 Slava KPSS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감.

그러던 중 한 언론이 폭로를 했는데...FACE를 비롯한 신예 래퍼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몇만 달러대 돈을 줬다고 드러남. 근데 더 중요한 건 FACE는 이걸 여러 번 거절했다는 것. 그동안 병신 또라이 찌따새끼인줄만 알았던 FACE의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짐. 근데 그 와중에 푸위병들이 FACE의 인스타를 욕으로 도배(...) FACE의 아버지는 미국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FACE가 러시아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발언하여 무산. 지금 FACE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여자친구는(이 사람도 유명 유튜버임) 러시아 FSB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함.



래퍼 FACE(위)와 여자친구인 유튜버 Mariana Ro(아래)

- 검열법

<https://youtu.be/r5uE9viTG8c>

이 와중에 푸틴이 사실상 FACE를 저격하는(참고로 FACE는 해당 발언 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구찌 가게를 들어가 요요 그녀는 내 스를 햄버거처럼 빨아 요요' ㅇ스르 하던 새끼임) 발언을 하며 검열법을 제정, 결국 수많은 10대 친구들이 거리에 나오

는 계기가 되었음.

2) 부랴트족

부랴트족은 몽골계 소수민족인데 그 거대한 체구로 러시아인은 상대가 안 되며 경찰도 같은 부랴트족 경찰이 나와야 제압이 되는, 러시아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임. 근데 어떤 미친 백인우월주의자 새끼가 울란우데에 쳐들어와서 시베리아의 미개한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무슨 스탈린식 논리로 무당집들에 충기로 테러함. 근데 숨방망이 처벌+푸틴의 극우화, 슬라브 우선주의 정책...이제 애네가 깨어났다.....지켜봐야겠다.....

+울란우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된 울란우데 시장 여론조사에서 공산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고 여론도 공산당 쪽에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당 후보가 당선, 공산당 후보는 참패함. 이에 맞서서 보수좌파 유튜버 바이로프가 신임 시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장을 향해 주작충이라고 욕함.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공산당 소속 시의원과 함께 공동투쟁에 들어가 시장 재선거 및 반정부운동가 석방을 외치는 시위를 조직했고, 이게 며칠 갔음. 근데 미개한 러시아 째새들은 바이로프를 체포해 감. 그래서 바이로프의 석방을 요구하며 공산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겨우 해결됐음.

그 결과...

러시아관 홍콩 구의회 선거

2019년 9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무려 13석 감소한 25석

공산당은 8석 증가한 13석

원외 친서방파 정당인 야블로코당은 4석 증가한 4석

사민주의 정당인 정의 러시아당은 3석 증가한 3석

통합당 2중대, 3중대인 자민당(지리놉스키 사당)과 조국당(여긴 그 악명높은 파시즘 극우정당임)은 아예 의석을 잃었음. 푸틴이 엄청 뻑쳤다고...

다시 연합된 소비에트 러시아를 향해 전진합시다!!!